

날짜 2023-03-19(D1) 본문 눅3:21-38
번호 2436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62,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께서 세례(浸禮, *baptism*)를 받으시다’

시작 주기도
찬송 찬62,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눅3:21-38)
찬송 찬63,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봉헌 변준석 형제
광고 ① **번역(5차) 관련** 번역은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 중입니다. 먼저 AI 자동번역기(현재는 DeepL 사용)를 통한 초벌 번역, 물론 이를 위한 사전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PDF 파일에서 텍스트를 복사, HWP 한글 문서에 옮긴 후, 나름의 문서정형화 작업을 거치기 때문인데, 정형화 작업은 라이닝, 말씀 구분, 강조 등의 몇 단계 세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본 작업이고요, 이후 해당 챕터를 복사, 번역 문서로 옮겨 자동번역을 적용합니다. 이후 두 번째 트랙인 직접 마무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번역기가 할 수 없는, 영적 번역이지요. 처음부터 직접 하지 않고, 먼저 번역기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스베덴보리의 문체가 17, 8세기 유럽 학자층에 유행했던 만연체이기 때문이며, 이를 번역한 20세기 초 영역본 역시 이 만연체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연체의 특징은 문장 하나를 접속사, 분사 등을 써서 치렁치렁, 심하면 거의 한 페이지에 걸치도록 길게 작성, 전체 문장구조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짝 노동집약적 단계는 AI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진도는 창8:20, AC.923 까지 했습니다. 불륨 1까지는 첫 번째 트랙으로만 갑니다.

헌금기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3월 셋째 주일,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 ‘주님께서 세례(浸禮, *baptism*)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세례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첫째, 세례라는 예식, 의전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주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겪는 거듭남의 전 과정을 주님도 똑같이 지금도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겪으시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에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오, 주님, 이 사실을 일상 가운데 늘 기억하여 유혹과 시험,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